

# 계속되는 거래부진 속에 물동량 '똥' 황기 천궁등 국산약재 상승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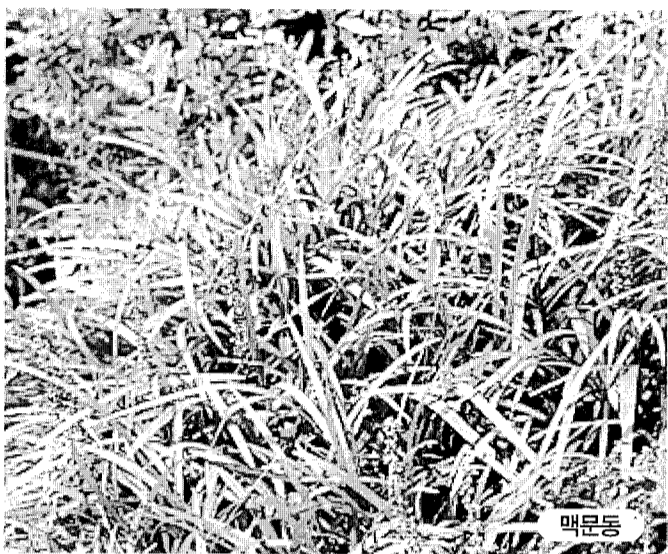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사회전반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낙관적 경기전망에 기대어 한약시장도 예전의 영화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IMF이후 한가해진 약전골목의 분위기는 그대로.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산한약재 가격이 일부 품목의 경우 5월 접어들면서 더욱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독활, 황기, 천궁, 황금, 향부자, 택사, 시호, 산수유 등이 그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국산시세 폭등의 주요원인으로는 지난해 소비부진과 약재값 폭락 영향으로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급감, 생산량이 예년보다 대폭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기존의 재고량을 감안할때 국내 소비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장사군들의 '사재기' 악습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 이들이 대다수다.

국산약재 물동량이 뜸한데다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을 틈타 최근엔 밀수나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약재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어 정부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강화는 물론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국산약재 시세의 상한가



맥문동

유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부진은 여전한데다 시세폭등 역시 일부 장사군들의 가격조작에 의한 거품성이 많아 실제 농가소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도시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한약재 전시판매 행사장에서도 예전의 북적거림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5월이 수확기인 맥문동을 비롯 익모초, 인진 등 풀잎약재들의 경우 햇것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세는 다소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구기자** 5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7천 원 선으로 지난달보다 보합

세다. 청양산지에서 1만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구기자 색깔이 거뭇해져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5월 이후에는 시세도 조금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물량부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구기자는 최근 식품으로 반입된 중국산이 시중에서 약재로 변칙유통됨으로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다.

**황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5월1일 현재 1년근 소황기가 4월초 보다 1천원 폭으로 오른 근당(6백g 기준) 1만 원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3년근, 6년근 대황기 시세는 근당 1만8천, 3만2천 원 선으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엔 국산시세 상승을 틈타 대량 반입된 중국산 황기가 국산과 혼용, 산지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산지인의 전언. 식약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해도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황기는 2만9천80kg. 그러나 보따리나 식품용등으로 실제 반입된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게 물동량을 직접 피부로 감지하는 시장 상인들의 분석이다.

**시호** 지난해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해 시세는 시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물량도 귀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 5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지난달보다 2천원 폭으로 오른 2만2천원(통)선이다. 관련 소비자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입시호가 쿼터폼으로 반입돼 들어오기까지 당분간 보합세를 이룰 전망이다. 시호는 국내 소비량이 많은 약재중의 하나로 국내 생산기반 조성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품목이기도 하다.

**황금** 4월초 8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황금이 5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근당(6백g 기준) 1만원 선으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물동량이 귀해 값이 폭등한 다른 약재들과 마찬가지로 황금 역시 장사군들의 '매점매석' 영향으로 일시적인 물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쿼터폼 반입여부에 따라 다소간 시세변동이 있을듯.

**택사** 지난해 수확시기인 12월말 근당(6백g 기준) 3천3백원 선이던 택사시세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5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 5천5백원 선까지 도매거래되고 있다. 4천5백원 선이던 4월초보다 1천원, 지난 연말 보다는 2천2백원 상승으로 무려 66%포인트나 경중 올라섰다. 물동량이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일부 상인들에 의한 '사재기'가 폭등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 물량이 풀릴경우 국내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란 분석이다.

**향부자** 경동약령시장내에서 5월1일 현재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2천3백원 선으로 2천2백원이던 4월초보다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수준.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 올 햇것이 출하되기까지는 향부자 시세가 더 오를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작약** 2,3년전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작약은 생산량도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작황도 부진한 편이어서 좋은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다. 5월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5천원 선, 호남작약이 3천5백원 선이다. 올 햇것 출하량은 예년보다 더 감소할것이란 예상속에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산수유** 물량이 귀해 산수유 폭등세도 좀처럼 수그러들것 같지 않다.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짝으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2만6천원 선으로 2만5천원선이던 지난달보다 1천원 폭으로 더 올랐다. 물동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국산과 비슷한 보따리 물건이 들어와 혼용돼 판매되고 있기도. 관련 소비자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얼마간의 수입 산수유가 쿼터폼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독활** 지난 연말부터 4월 초까지 근당(6백g 기준) 3천원선에 머물던 독활시세가 5월초 들어서면서 근당 4천8백원으로 무려 60%포인트 경중 뛰었다. 전북지역에서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한 상인이 독활을 시중에 풀지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대략 5만 근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활시세가 앞으로 더 오를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맥문동**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값이 치솟았던 맥문동 시세가 최근 햇것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초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거삼이 1만3천원, 막백이 1만1천원 선이다. 올 작황도 풍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을듯. 햇것 출하가 거의 마무리단계인 청양산은 그런대로 평년작이란 귀뜸.

**천마** 한동안 주춤하던 천마시세가 5월초 들어서면서 다시 근당(6백g 기준) 2만3천원선으로 경중 뛰었다. 근당 1만8천원 선에 머물던 4월초 보다 무려 5천원 폭이나 오른 것. 천마는 최근 2,3년 전부터 농가에 급속히 보급 확대재배되기 시작했으나 검증안된 불량종자 종균 범람 피해로 생산량은 극소량에 불과할뿐 아니라 자연산은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두충

### 신체활동력과 지구력 키워준다

단순 한약재로만 알려진 두충이 신체의 활동력과 지구력을 키워주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돼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서의 개발가치가 기대된다.



이는 경남도농업기술원 함양약초시험장(장장 김동길)이 지난 97년부터 2년여간 쥐와 닭등 동물을 이용, 두충의 생리활성화 연구를 벌인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김동길 장장은 "두충은

상용 복용해도 인체에 무해하고 협압강화와 이뇨·항피로작용 등의 효능이 탁월하며 국내에 생산량이 풍부해 건강보존 식품으로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